

#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추 현 화(순천시결혼이민지원센터 간사)  
박 옥 임(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진 희(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시간강사)

## I. 서 론

초기 국내에서 성사된 국제결혼의 형태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 노동자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비레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예전과 달리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갖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한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여성들이 국내 결혼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결혼시장의 성비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남성들 중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개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총각들이 제 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박옥임, 2007). 또한 저임금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의 보다 나은 삶과 경제적 안정을 꾀하려는 외국인 여성의 욕구가 결혼을 꿈꾸는 독신의 한국 남성들의 욕구와 부합되면서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 결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저개발국 이주여성에게 결혼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주여성 출신국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선교 목적을 이유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으며(전만길, 2005),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도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결혼의 1%대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2005년에는 4만 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에 달하여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그러나 결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애정이 배제된 채 성사된 국제결혼은 원활하지 못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극복 문제 외에도 빈곤,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양육에서 결혼적응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2006)에 의하면 총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2.7% 감소했으나 한국인-외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05년보다 46.8% 증가했다. 이렇게 이혼한 10쌍 중 8쌍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헤어진 것으로 나타나 농촌 총각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국제결혼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단체나 결혼중개업소의 배우자 선택과정에 있어 강제된 1~2회의 만남과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국제결혼의 성립과정의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이고, 매스컴을 통한 국제결혼 관련 보도 자료들 또한 대부분 국제결혼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민족, 언어,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거나 수용하려는 태도는 아직도 낮은 편으로, 급증하는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이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성이 겪고 있는 문제와 지원정책이 연구의 대상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지원정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성의 한국어 교육, 가족 문화 이해 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이주여성에게 편중되다보니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선택했던 한국 남성들은 본의 아니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로, 문제 있는 남성으로, 능력 없는 남편으로 낙인 되고 있다. 이러한 편견과 물이해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더욱 위축, 고립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단란하게 살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국제결혼이주여성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국제결혼 가정의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며, 국제결혼가정의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실태를 분석하고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의 현황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며 이는 주로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특히,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2007)에 의하면 최근 결혼하는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불과 1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 외국인과의 총 결혼건수는 2005년 보다 6,431건 감소한 39,690건이며 이 중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은 9,482(2.8%)건인데 반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은 30,208건(9.1%)에 달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건수는 2006년도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 결혼건수가 감소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sup>1)</sup> 실시로 국내 입국이 쉬워짐에 따라 중국 국적의 동포가 결혼을 입국수단으로 택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국제결혼 현황

(단위 : 건, %)

년 도	전체결혼 건수	국제결혼 건수	한국여성+외국남성	한국남성+외국여성
2002	306,573	15,913( 5.1)	4,896(1.5)	11,017(3.5)
2003	304,932	25,658( 8.4)	6,444(2.1)	19,214(6.3)
2004	310,944	35,447(11.4)	9,853(3.2)	25,594(8.2)
2005	316,375	43,121(13.6)	11,941(3.8)	31,180(9.9)
2006	332,752	39,690(11.9)	9,482(2.8)	30,208(9.1)

출처: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2007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단연 앞섰으나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경상·전라도 지방에서는 베트남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진 농촌 총각들의 최근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06년 전체 결혼 11,074건 중 국제결혼 건수는 2,512건(22.68%)으로 거의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대법원, 2007). 이어 전북(16.13%), 경북(15.09%)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8개도가 10%를 상회하고 있다. 2003년만 해도 전남의 국제결혼 비율은 11.21%였으나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3년 만에 16개 광역시·도 중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1) 방문취업제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표 2> 시·도별 국제결혼 건수 현황

(단위 : 건, %)

시도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강원도	857	9.09	875	9.96	1,066	11.89	1,081	11.75
경기도	4,186	6.23	5,889	8.62	7,310	10.47	6,237	8.30
경 남	1,287	6.19	1,590	7.78	2,242	10.82	2,970	12.94
경 북	1,545	8.98	1,556	9.75	2,344	13.92	2,771	15.09
광 주	354	4.21	531	6.51	501	6.24	534	6.16
대 구	673	4.69	848	6.10	1,044	7.78	1,000	7.05
대 전	466	5.13	631	7.02	801	8.73	589	6.20
부 산	1,871	8.85	1,979	9.52	1,980	9.96	1,974	9.45
서 울	10,413	13.13	14,306	18.01	15,633	19.24	11,492	13.87
울 산	304	4.49	394	5.83	610	8.56	582	7.65
인 천	1,206	7.45	1,772	10.85	2,242	13.42	1,535	8.92
전 남	1,424	11.21	1,578	14.38	2,096	18.52	2,512	22.68
전 북	1,191	9.88	1,635	14.81	1,957	17.60	1,826	16.13
제 주	537	12.53	667	16.00	589	14.13	657	14.93
충 남	1,201	9.79	1,510	12.27	2,014	15.32	2,039	14.31
충 북	953	10.17	1,173	12.78	1,386	14.97	1,272	12.82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2007. 4. 13)

국제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국제결혼이주여가족의 연구 경향성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주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문제, 부부갈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연구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장운정(2007)은 이러한 선행연구가 연구 실시 주체에 따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연구시기 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시민단체에 의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국제결혼 가족의 가정폭력의 실상과 문제 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족들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현황 파악과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지원을 목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기관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2005)는 전국의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림부(2006)는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언어, 문화, 가족, 육아, 사회적응 등의 요구와 문제를 조사하고 실제 농촌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규모와 현황, 그들의 어려움, 지원 사업 검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차원적 정책지원 방안들을 제시하였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학계에 의한 연구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로 인권유린, 한국가부장제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국제결혼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인

류학 분야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참여관찰 및 생애사연구방법 등을 통해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가정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안정성과 가족문제(임경혜, 2004), 국제결혼 부부갈등에 관한연구(김오남, 2006)등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유형과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고 부부갈등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개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장운정,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관계로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현정(2003)은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국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필리핀 아내의 결혼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농촌노동자와 도시노동자의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의 경우 혼전기대 결과가 이질문화생활의 적응 보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더 높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경우 이질문화생활의 적응이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옥(2006)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단체 등에 대한 1~3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과 남편, 가족들의 관계는 현재 갈등적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가족관계의 친밀성은 이들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맺은 가족관계와는 갈등하지만 편견 없이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갈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장운정(2007)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가치관 특성, 상호관계 특성, 문화적응 태도가 결혼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결혼적응은 의사소통,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갈등, 자문화전달태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결혼안정성에서는 의사소통, 전통적 가족주의가치관, 다문화수용태도 순으로, 애정표현에서는 자문화전달태도만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부부일치도는 부부갈등, 의사소통, 전통적 가족주의가치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과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인 부부공유도에서는 의사소통, 전통적 가족주의가치관, 다문화수용태도 순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 남편의 전통적 가족주의가치관, 자문화전달태도 변인이 국제결혼 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

고정관념은 특정한 집단의 속성에 관한 신념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부정적 감정은 집단에 대한 혐오감, 불만 등과 같이 좋지 않은 느낌 즉, 개인의 불쾌한 정서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의 인지적 결정요소로써, 특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집단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갖게 하고 그 편견에 따른 차별대우를 낳게 한다(류근선·권혜진, 2002). 이로 인해 지각하는 차별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차별감을 높게 인지한 사람은 사회적 지원을 잘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에 의한 스트레스 완충 효과 등을 경험하기 어렵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강현주(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주관적 차별감은 부정적 감정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결국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게 만든다. 김소영(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높은 사람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결혼을 한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차별감과 스트레스 및 결혼적응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역할태도와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또한 분분하다. 대체로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있으며(최혜숙·이은혜, 1998), 가사를 여자가 해야 할 일로 의식할수록 남편의 가사 참여는 제한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성의 몫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남성의 성역할 태도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남성 본인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들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의 전통적 가치관은 자신의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명자, 1985).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정(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남편, 아내 모두 근대적인 성역할 집단의 결혼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강은령(1989)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부부 애정표현도를 제외한 모든 결혼적응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Brenner(1984)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부적응 및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이영자, 1994:재인용).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내적 자원이며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한미라, 1996).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영자(199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부정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이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소은덕, 2006). 남성들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낮으나에 따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Satir(1972)는 문제가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들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족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소영, 2003:재인용). 이은주(1993)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활력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고, 조유리(2000)는 남편, 부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결혼적응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결혼적응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선남(1991)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자기 자신의 부족한 자아존중감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각 배우자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울해지거나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등의 낮은 자아존중감의 경우 결혼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차별감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가정 내 역할 재정립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역할 태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족 전체가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주관적 차별감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심리적인 변인 중 주관적으로 느끼는 차별감과,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은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으로 주관적 차별감,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였으며 이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 언어,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종사자에게 충분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한 후 설문지를 배부·회수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는 2007년 7월에 설문지를 통해 30명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93부를 배부하였으나 이 중 238부가 회수되었고 내용이 부실한 25부를 제외한 21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40~49세가 132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68명(31.9%), 50세 이상은 13명(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02명(47.9%), 통일교 52명(24.4%), 기독교 31명(14.6%), 불교 25명(11.7%), 천주교가 3명(1.4%)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113명(5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졸 이하 72명(33.8%), 대졸 이상이 28명(13.1%) 순이었다. 직업은 농업 및 수산업이 83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이 58명(27.2%), 자영업 및 서비스직이 27명(12.7%), 기술 및 운수업이 23명(10.8%), 사무·관리 및 전문직이 22명(10.3%)이었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7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60명(28.2%)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38명(17.8%),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36명(16.9%)이었다. 소득수준은 101~150만원 이하가 62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 이상이 54명(25.4%), 151~200만원 이하가 51명(23.9%), 100만원 이하는 46명(21.6%)

이었다.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120명(56.4%), 확대가족이 93명(43.7%)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력은 고졸이 93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졸 이하 65명(30.5%), 대졸 이상이 55명(25.8%) 순이었다. 결혼경로를 살펴보면,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결혼성사가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36.2%, 친구소개가 7.0%, 행정기관을 통한 경우는 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남횟수는 1~2회가 114명(53.5%), 3~4회가 46명(21.6%),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34명(16.0%)이었으며 5회 이상 만난 경우는 19명(8.9%) 순으로 불과 1~2회의 적은 만남 후 결혼이 성사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지불에 있어서는 ‘나만 지불’한 경우가 128명(60.1%)으로 가장 많았고, ‘나와 아내 모두 지불’한 경우가 42명(19.7%), ‘아무도 지불 안함’의 경우 28명(13.1%) ‘기타’ 11명(5.2%), ‘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한 경우는 4명(1.9%)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를 살펴보면, 5년 이상이 82명(3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79명(37.1%), 1년 미만이 31명(14.6%), 3년 이상~5년 미만이 21명(9.9%)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분포를 보면 읍부가 156명(73.3%), 시부가 57명(26.8%)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형태는 초혼이 80.8%, 재혼이 19.2%이었다.

## 2. 측정도구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소득수준, 결혼지속년수, 연령차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변인은 주관적 차별감,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각 하위영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 차별감 척도는 이해정(200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차별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3이다. 성역할 태도는 정종희(198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65로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김경신(1998)이 개발한 가족가치관 척도 중 자아존중감 문항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4로 연구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김영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스트레스를 본 연구에 맞도록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4개의 하위척도인 가족관계문제 8문항, 재정문제 8문항, 직업문제 5문항, 건강문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스트레스의 신뢰도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것을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정서적 지지 11문항, 평가적 지지 5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적응도는 Spanier(1976)가 만든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이민식, 김중술(1995)이 우리말로 번역한 ‘결혼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 부부만족도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적응의 신뢰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결혼적응의 일반적인 경향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결혼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의 일반적 경향

구 분		M	SD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문제	1.98	.70
	재정문제	1.85	.76
	직업문제	1.51	.72
	건강문제	1.66	.83
전 체		1.79	.61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02	.65
	평가적 지지	3.04	.71
	정보적 지지	2.89	.72
	물질적 지지	2.80	.71
전 체		2.96	.65
결혼적응	부부일치	3.32	.70
	부부결합	3.53	.58
	부부만족	3.60	.77
전 체		3.47	.58

전체 가족스트레스의 평균은 1.79로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1.98로 가장 높았고, 재정문제가 1.8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가 1.66, 직업문제가 1.51 순이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이들

이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들로 인해 일반적인 스트레스마저도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지지는 평가적 지지가 3.04, 정서적 지지가 3.02로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점수인 2.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 지지 2.89, 물질적 지지는 2.80으로 나타났다. 결혼적응을 살펴보면,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부부만족도가 3.6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결합도가 3.53, 부부 일치도는 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 1) 변인간 상관관계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은 <표 4>와 같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은 월소득( $r=.17$ ), 연령차( $r=-.18$ ), 주관적 차별감( $r=-.50$ ), 자아존중감( $r=.47$ ), 가족스트레스( $r=-.49$ ), 사회적 지지( $r=.45$ )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차가 낮을수록,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변인간 상관관계

1	1.00											
2	-.31**	1.00										
3	-.10	.31***	1.00									
4	.23***	-.04	.04	1.00								
5	.20***	-.02	.08	.60***	1.00							
6	.23***	-.17*	-.20**	-.29***	-.54***	1.00						
7	.08	-.04	-.08	.07	-.04	.13*	1.00					
8	-.00	-.14*	-.06	-.01	-.03	.03	.28***	1.00				
9	.06	.15*	.23***	.05	.07	-.10	-.30***	-.10	1.00			
10	.01	-.16*	-.26***	.27***	.15**	.05	.40***	.06	-.23***	1.00		
11	-.00	.13*	.14*	.02	.07	-.13*	-.25***	-.09	.42***	-.16*	1.00	
12	.00	.08	.17*	.00	.11	-.18*	-.50***	-.18	.47***	-.49***	.45***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p<.05$ , \*\* $p<.01$ , \*\*\* $p<.001$

1. 연령 2. 학력 3. 소득수준 4. 자녀수 5. 결혼지속년수 6. 연령차 7. 주관적 차별감 8. 성역할태도 9. 자아존중감 10. 가족스트레스 11. 사회적 지지 12. 결혼적응

### 2)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관련변인과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W(Durbin 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62~1.69의 범위에 있어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모두 2.0이하로써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델 1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제시하였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3%이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는데, 심리적 변인에서

주관적 차별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주관적 차별감,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사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차별감,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학적 변인	연령	.37	.08	.20	.04	-.10	-.02	-.14	-.03
	학력	1.11	.04	-.05	-.00	-1.04	-.03	-1.56	-.05
	소득	2.19	.13*	.74	.04	-.45	-.02	-.52	-.03
	자녀 수	-2.45	-.11	-1.22	-.05	.64	.03	.69	.03
	결혼지속년 수	1.46	.07	1.09	.05	2.33	.11	2.31	.11
	연령차	-2.74	-.16	-1.40	-.08	-.42	-.02	-.10	-.00
심리적 변인	주관적 차별감			-2.40	-.37***	-1.57	-.24***	-.13	-.20**
	성역할 태도			-.26	.03	-.46	-.06	-.60	-.08
	자아존중감			2.44	.33***	2.26	.30***	1.57	.21***
가족 스트레스					-.51	-.36***	-.51	-.36***	
사회적 지지							.35	.25***	
R <sup>2</sup>	.03		.35		.44		.52		
R <sup>2</sup> 변화량	-		.32		.09		.08		
F	2.37*		14.11***		18.09***		20.07***		

\*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심리적 변인과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결혼적응간의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한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결혼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총 평균 5점 만점에서 1.79로 다소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정, 건강, 직업 순으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적응에서는 부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부결합도, 부부일치도 순이었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차가 적을수록,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차별감 순으로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주관적 차별감과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 요인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즉,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었고 결혼적응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차별감,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가족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축적될수록 결혼적응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지지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자원으로 결혼적응에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가 느끼는 주관적 차별감이 낮아질 경우 결혼적응이 높아지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적응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와 주관적 차별감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면 결혼적응도는 높아질 것이다.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 지원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가족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이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관적 차별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다시 말해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일민족, 순혈주의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적용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절대 필요하며, 국제결혼 가정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 프로그램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른 인종,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이해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교과과정 뿐 아니라 유아교육 과정에도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들은 타인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 대해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반드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결혼적응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차별감,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인 것을 규명해보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라남도에서 거주

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지역적 표집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대상자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설문 대상 선정의 어려움과 회수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불성실한 응답의 부분 때문에 추후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위험주부/미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1998),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4.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전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2001), 중년기 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법원(2007), 보도자료, 2007. 4. 13.
- 류근선·권혜진(2002), 청소년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앙간호논문집, Vol. 6, No.2.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옥임(2006), 농촌다문화 가족의 복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31-32.
- 박정숙(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김중술(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95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옥(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중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배(2003),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중도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 · 이은혜(1998), 맞벌이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사와 자녀양육 참여, 연세생활과학논집, 12호.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통계청(2007), 2006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ss, P. G.(1987), Psychological father absence and presence : A theoretical formulation for an investigation into family systems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7.
- Boss. P. G.(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210~357.
- Forkman, S., & Lazarus, R. 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pp.150-170.
-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Brothers.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 Addison-wesley.
- McCubbin, H. I.(1979), Integration coping behaviors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237-244.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J & Wilson, M. A.(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te Publications.
- Walsh, F.(1993). Conceptualization of normal family processe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